

허브를 이용한 일본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日本 Kawaguchikocho의 Herb Festival의 사례연구-

홍영록 * · 조태동 **

*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학과 · **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local economy activation of Japan by herb

-A case of herb festival in Kawaguchikocho Japan-

Hong, Young - Rok * · Cho, Tae - Dong **

*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ng Ju Univ.

**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ture Kangnung Nat'l Univ.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on the basis of results gained from a survey in Yamanasihyun Kawaguchikocho, where the herb festival is successfully held,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by herb.

- 1) The herb education for person in charge in the local authorities, the promotor of herb festival, has to be preceded and the local residents should try to understand what the herb is.
- 2) For a successful herb festival in the aspect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tailed basic study and publicity including human-,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conditions for herb should be performed.
- 3) Herb event should have various programs and formats to arouse the user's interest and should be a pla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본에서는 1940년대 흑까이도(北海道)에 최초로 라벤더를 도입하여 1960년대 라벤더를 이용한 허브산업이 정착하였으며, 일본 본토에서는 1980년대부터 허브를 이용한 관련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996년현재 일본의 허브산업현황을 보면 허브샵 224개소, 식물원 33개소, 허브통신판매 18개소(Fax, 전화, 엽서 등 의 주문에 의한 배달), 샵과 허브스쿨 19개소, 허브를 주제

로한 레스토랑 카페 호텔 별장 25개소, 전문허브스쿨 4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활발한 경영이 전개되고 있다¹⁾⁽²⁾⁽³⁾. 또 허브관련사업을 보면 허브를 주제로한 국내외 여행, 이벤트와 허브계간지, 허브관련서적 등이 대량 출판되고 있으며 허브제품으로 수공예품,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허브묘목 및 분화로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심가, 고급백화점 등에서 허브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매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한편 제약회사에서도 허브사업부를 마련하여 제품판매에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허브가 생활화되고 있음을 말할나위없으며 특히, 미와 건강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과 주부들에게는 더욱 큰 인기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같이 허브를 주제로하여 다양한 허브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허브산업은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고함)에서 허브이벤트를 직접 주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원전부터 허브를 생활화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관상효과의 허브가든, 판매를 위한 실용재배와 허브샵이 도시변화가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광지전체가 허브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 패턴이 다양하다. 또 역사유적지를 배경으로 대단위 허브원을 조성하였고 레스토랑, 허브샵, 휴게소, 미술전시장 등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관광지출을 유도하고 있다⁵⁾.

한편 국내허브산업의 현황을 보면 최근 3~4년전부터 소규모로 시작되고 있으며 인기허브상품인 허브오일, 암흑제, 향수 등의 대부분은 수입상품에 의존하고 있을뿐아니라 가공시 주류법, 위생법과 환경관련법등 제법규가 복잡하게 관계되어 인 허가상 법적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로 지자체시대를 개막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특화산업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양식의 고급화로 인한 향(香)문화의 추구와 생활속의 여유증가로 건강, 미용, 여가선용의 욕구가 증대하였으며 그에따른 관광패턴도 시작적 단순관광에서 보고, 느끼며, 즐기고 체험하는 주제관광으로 변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 국민의 관광성향에 부응하고 일본 지자체의 허브정책에 착안하여 금후 우리나라로 지자체 차원의 농 어촌, 산촌, 관광지에 새로운 소재인 허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전제 및 방법

1) 연구전제

허브에 대한 개요 및 허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능성에 대하여 본 학회지 제2권에서 이미 발표하였

으므로 본론에서는 생략하였다. 또 본론에서 꽃화의 활용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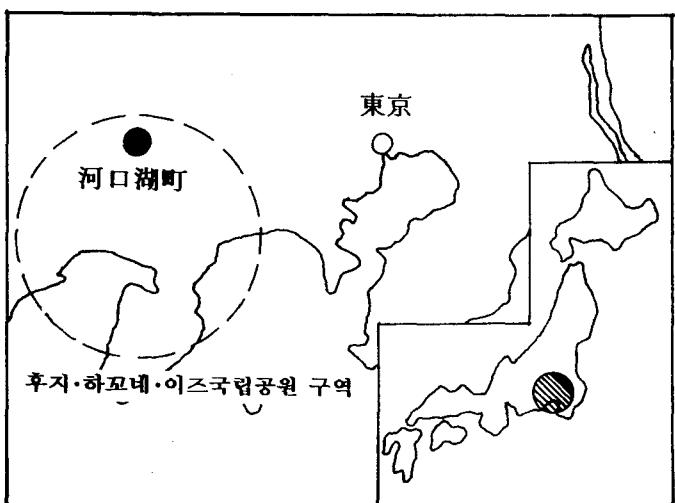
(1) 일본의 각 지자체 중에서 허브훼스티발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야마나시현 가와구찌꼬쵸(山梨縣河口湖町: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함)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허브훼스티발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5, 96년 2년간에 걸쳐 허브훼스티발기간(6월말~7월초) 중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현황, 이벤트프로그램, 관리운영 등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벤트진행에 관련한 제문제를 파악하였다.

(3) 현지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금후 우리나라의 농 어촌, 산촌, 관광지에 대한 허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한 지자체의 관리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사례연구(河口湖町)

1) 입지 및 개황



(그림-1) 가와구찌꼬쵸의 허브훼스티벌 위치도

라벤더허브훼스티벌을 이벤트화하고 있는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는 일본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후지湖中 하나인 河口湖를 둘러싼 해발 838m의 고산 마을로서 일교차가 매우 큰지역이다. 마을전체가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후지산과 호수를 조망할수 있

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하고 있는데, 인구는 1985년에 15,000명에서 95년에는 18,03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교통은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동경에서 동명고속도로로 10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로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산업현황을 보면 1차산업 9.9%, 2차산업 33.5%, 3차산업 62.6%에 종사하는데 점차 관광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다.

허브페스티벌은 1992년에 규모 46,580㎡로 개원하였으며, 라벤더 90%외 로즈마리, 타임, 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벤트의 역사적 배경

허브페스티벌의 이벤트화한 배경으로는 1983년 야마나시현(山梨縣)에서 후지산과 5湖지역의 관광기본계획을 구상하였으며 가와구찌꼬(河口湖)를 「꽃과 호수」가 있는 곳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하여 꽃마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⁶⁾. 당시 읍의회 의원인 「오사노』氏는 허브산업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관련공무원, 주민 등의 인식부족에 의해 이러한 제안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88년 「오사노』氏는 직접 읍장선거에 출마 당선된 후, 「후지산과 녹지풍부한 문화마을 만들기」사업검토위원회구성,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사업, 「꽃과 향의 음악감상회」을 개최하는 등 허브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 홍보작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시켰으며 4년후인 1992년 제1회 라벤더 허브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사노』氏가 허브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들수 있는데, 풍요와 여유중대에 따른 새로운 욕구창출의 필요성,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이 대부분 도시민임을 착안하여 리조트형 관광지인, 「풍요롭고 폐적하며 새로운 의욕 창출의 필요성」에 착안하였다.

특히 Herb Festival에서 라벤더를 이벤트의 소재로한 배경으로는 지역이미지 경쟁과 자연환경조건에 의해 6~7월의 장마기에 따라 관광지는 비수기를 맞게 되는데, 이 비수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착안하여, 「허브의 여왕」으로 불리는 라벤더를 선정하게 되었다. 라벤더는 6월하순~7월하순에 청자색, 보라색 등으로 개화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데, 가와구찌꼬쵸는 생육조건상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라벤더는 새로운 이미지제고의 소재로서 충분하고 가공에 따라 미용, 건강, 장식 등 그 용도가 다양하여 이벤트소재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이다.

3) 이벤트 현황

표-1에서 보듯이 허브페스티벌의 진행은 주최, 후원, 협력 등 15개이상의 기관이 밀접하게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은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의 관광과 농정과가 중심되고 있으며, 관광연맹상공회가 허브상품, 지역특산 품의 개발 및 판매를 맡아보고 있다. 그외에 각 관련기관은 시설관리, 홍보등 각각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표-1〉허브페스티벌의 진행기관 및 출연금 현황

주 최	후 원
○ 河口湖町	○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 河口湖町 관광연맹	○ 캐나다 대사관
○ 河口湖町 상공회	○ 농림수산성
○ 河口湖 허브향진홍회	○ 야마나시현
○ 리조트 문화도시 구상위원회	○ 재단일본특수농산물 협회
○ 후지 河口湖 고향 진홍재단	○ 일본도로공단

협력 : FM후지(방송국)

· 진행출연금 : 고향진홍 재단, 관광단체, 출점자(出店者)

〈표-2〉 진행소요경비

(단위: 万円)

구 분	예산액	비 고
보상비	810	사유토지 임대비
수용비	735	홍보 및 행사 관리비
운영비	96	행사준비 및 운용요원
위탁료	1,115	이벤트진행프로그램 수용력등
여비	30	관계자출장비
사용료	1,300	렌트, 자동차, 팩스, 전화 등 렌트비
공사비	280	행사장시설 공사비
원재료	1,284	허브상품
비품비	17	행사장비품
출자금	41	차기년도 이월금
합계	5,710	

* 1995년 기준

허브페스티벌의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사유지의 임대료인 보상비로 ₩810万(약 5천7백 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수용비, 운영비, 위탁료, 여비, 사용료, 공사비, 원재료비, 비품비, 출자금 등 모두 ₩5,710万(약

4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이중에서 특히, 텐트나 자동차, 팩스, 전화 등의 렌트사용료가 ¥1,300万(약 9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표-3〉 연도별 이용현황

구 분	축 제 기 간	방문객수
제 1 회 ('92)	6월27일~7월12일(16일간)	126천명
제 2 회 ('93)	6월25일~7월18일(24일간)	230천명
제 3 회 ('94)	6월25일~7월17일(23일간)	271천명
제 4 회 ('95)	6월24일~7월16일(23일간)	301천명
제 5 회 ('96)	6월22일~7월14일(23일간)	330천명

표-3에서처럼 허브훼스티발을 최초로 개최한 1992년도의 방문객수는 약 13만명인데 그 다음해인 1993년에는 약 2배로 증가했고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듯이 훼스티발은 크게 성공하여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허브훼스티발을 개최하기 위한 연도별 주요사업내용은 표-4에서 보듯이 1983년부터 기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1988년에 본격적인 허브훼스티발의 준비작업으로부터 그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허브 이벤트는 주 야간(표-5)으로 나누어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이용자의 욕구에 크게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사노읍장에 의하면 「이벤트프로그램은 훼스티발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들이 기획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며,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컨설턴트에 의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벤더 허브훼스티발에는 1일 약 60명의 자원 봉사자가 교통정리, 주차장과 컬ച스쿨 등 맡은 업무를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에게는 도시락만이 제공되고 있다. 라벤더의 수확은 「1万人이 체험한다.」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딸기 포도 수확의 감각을 도입하여 훼스티발 기간중 수확제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착순 500명에게 1주당 ¥500(약 3,500원)을 참가비로 받아 훼스티발 최종일에 수확제를 개최하는데 이용자가 직접 체험하며 수확한 라벤더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이벤트장의 허별공방에서는 포푸리, 리스, 입욕제 등의 제품을 가공 판매하며, 특히 허브관에서는 제품화된 다양한

허브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허별공방에서는 지역의 고령자, 정신박약아 및 신체 장애자에게 허브를 이용한 수공예품을 가공하게 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

하며, 생활 의욕의 향상을 꾀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불어 직업을 통한 생활 훈련의 장으로써 자립 생생을 촉진하고 있다.

허브훼스티발 기간중에 훼스티발과 관련하여 올리는 판매액은 관광사업을 포함하여 약 ¥30억(약 210억원) 정도인데 약 20일간의 수익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는 약 ¥400万(약 3천2백만원)의 이익금을 얻고 있으나 훼스티발의 목적이 지역 활성화이므로 차기 년도의 수입으로 조정하고 있다.

허브재배 농가현황은 허브만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겸업을 하였으며 현재 농가 9戸의 조합과 화목조합(花木) 10戸로 모두 19戸의 농가가 묘목과 꽃을 재배 판매하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허브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자 조합의 조직 속에서 공급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요에 따른 농가 재배의 증가를 과제로 하고 있다. 그외에도 허브 상품의 신개발과 판로의 확대, 허브문화의 정착화 추진과 허브를 삶 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사업 전개, 향기로운 문화의 새로운 전개등이 요구되며, 라벤더의 보식체계, 허브관에서의 판매용묘목, 홀라워 어렌지먼트용, 드라이 홀라워 등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 내에서의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5년 현재 일반화단 17개소(약 15,000m²), 코스모스로드(약 700m²), 라벤더가든(약 30,000m²)가 있는데, 관리는 노인크럽, 부인회, 자주크럽 등 각 단체와 읍의 주민과 노인인재센타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한편,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PAT친사회 등에서 봉사활동에 의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 허브훼스티발 이벤트 전략

허브훼스티발의 이벤트(사진-1)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집행기관은 전문가의 초청강연 및 관계자들의 연수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브에 관한 주민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허브묘목을 배포함과 동시에 허브 1평ガ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읍내공원을 라벤더화 하고 있다. 또 허브관(사진-2)을 건설하고 축제기간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

〈표-4〉 허브훼스티발의 이벤트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 현황

주 요 사 일 내 용		연도
1983 ~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산과 5개 지역 관광기본계획구상 ○ 河川湖川 꽃과 호수의 지역으로 이미지 확정 작업을 위한 정비사업 실시 ○ 음의회의원 「오사노」 氏의 허브산업도입 제안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창조사업 표어제작 ⇒ 「후지산과 호수가 있는 문화의 고장」 ○ 「후지산과 농지 풍부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 천문기기 조성 기념 경연 및 「천문기기 축제」 개최 ○ 라벤더 운수 만들기, 전담부 회의 개최 ○ 라벤더의 「꽃밭」 북해도 전략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일회 강습회 개최 ○ 허브가든 조성 및 식재 ○ 농가 및 원예 조합의 동참 합의 ○ 허브 향을 넣은 팝콘 제작 ○ 라벤더 채베(십목) 개시 : 원예조합원 ○ 「허브관」 완성 오픈(7월 1일) ○ 공원의 가든 조성 및 식재 ○ 허브 관부지 내에 온실 설치 ○ 원예조합의 허브 만들기 개시: 다음 해의 묘목을 육묘에 발주 ○ 허브 관부지에서 유기 퇴비로 허브 만들기 개시: 다음 해의 묘목을 육묘에 발주 ○ 허브 관부지 내에 「꽃과 향과 빛의 화장실」 설치 ○ 人池 공원 내에 「꽃과 향과 빛의 화장실」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 ○ 花과 향과 음악의 감상회 개최 (장래 관광이벤트를 향하여) 낙원 사업 개시(미래로 향한 살기 좋은 환경의 마을을 창조한다는 것) ○ 허브를 포함하여 河川湖川을 꽃으로 장식하여 국제적인 관광자로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 추진「꽃과 향의 마을 만들기」 사업, 전개 ○ 허브 강습회 실시 ○ 꽃소식 발행 ○ 회단 조성 및 식화(樹化) ○ 8. 소년공원의 유기 퇴비(자용지)에 허브 2㏊ 식재 ○ 허브 헤스티벌 「구체적인 기획 입안」 ○ 고령지의 보람 있는 삶의 대책사업으로 「라벤더 농원」을 개설하여 묵의 공급체계 수립 ○ 지역의 청년박약아 및 신체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더불어 작업을 통한 생활훈련의 장으로써 사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허벌공방」을 설치, 허브제품의 제작체계를 수립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일회 강습회 개최 ○ 허브가든 조성 및 식재 ○ 농가 및 원예 조합의 동참 합의 ○ 허브 향을 넣은 팝콘 제작 ○ 「허브관」 완성 오픈(7월 1일) ○ 공원의 가든 조성 및 식재 ○ 허브 관부지 내에 온실 설치 ○ 원예조합의 허브 만들기 개시: 다음 해의 묘목을 육묘에 발주 ○ 허브 관부지에서 유기 퇴비로 허브 만들기 개시: 다음 해의 묘목을 육묘에 발주 ○ 허브 관부지 내에 「꽃과 향과 빛의 화장실」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 ○ 花과 향과 음악의 감상회 개최 (장래 관광이벤트를 향하여) 낙원 사업 개시(미래로 향한 살기 좋은 환경의 마을을 창조한다는 것) ○ 허브를 포함하여 河川湖川을 꽃으로 장식하여 국제적인 관광자로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 추진「꽃과 향의 마을 만들기」 사업, 전개 ○ 허브 강습회 실시 ○ 꽃소식 발행 ○ 회단 조성 및 식화(樹化) ○ 8. 소년공원의 유기 퇴비(자용지)에 허브 2㏊ 식재 ○ 허브 헤스티벌 「구체적인 기획 입안」 ○ 고령지의 보람 있는 삶의 대책사업으로 「라벤더 농원」을 개설하여 묵의 공급체계 수립 ○ 지역의 청년박약아 및 신체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더불어 작업을 통한 생활훈련의 장으로써 사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허벌공방」을 설치, 허브제품의 제작체계를 수립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花과 향과 음악의 감상회 개최 (장래 관광이벤트를 향하여) 낙원 사업 개시(미래로 향한 살기 좋은 환경의 마을을 창조한다는 것) ○ 허브를 포함하여 河川湖川을 꽃으로 장식하여 국제적인 관광자로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 추진「꽃과 향의 마을 만들기」 사업, 전개 ○ 허브 강습회 실시 ○ 꽃소식 발행 ○ 회단 조성 및 식화(樹化) ○ 8. 소년공원의 유기 퇴비(자용지)에 허브 2㏊ 식재 ○ 허브 헤스티벌 「구체적인 기획 입안」 ○ 고령지의 보람 있는 삶의 대책사업으로 「라벤더 농원」을 개설하여 묵의 공급체계 수립 ○ 지역의 청년박약아 및 신체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더불어 작업을 통한 생활훈련의 장으로써 사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허벌공방」을 설치, 허브제품의 제작체계를 수립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회 河川湖川 허브웨스티벌 개최(6월 27일 ~ 7월 12일; 16일간) ○ 라벤더 콘서트, 허브컬쳐 스튜디오, 허브테마 워크숍, 허브모델 캠핑회, 콘티스트, 허브체리트, 허브워크 twoday, 라벤더 수확제 등 24개의 이벤트 개최 ○ 라벤더 묘목의 증식을 농가에 의뢰 ○ 꽃 시암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허브 꽃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개편, 「공원 국지계」를 신설하여 매력 있는 화단을 만들기 개시 ○ 허브오너, 시스템 캠페인을 허브웨스티벌 기간 중에 전개하여 「향을 가진 오너」를 모집, 유홍농지를 활용하여 1평 면적에 10주의 라벤더를 식재 (3년간 20,000㎡) ○ 허브밸리지를 허브웨스티벌 기간 중에 전개하여 「河川湖川 허브 주민」을 모집 ○ 전국의 허브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서·군·읍과 정보교회원으로 허브 개회, 이에 따라 타 시·군·읍의 허브사업 상황을 알고 허브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보다 좋은 시책을 기획할 것을 기대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회 허브웨스티벌 개최(6월 25일 ~ 7월 18일; 24일간) ○ 허브웨스티벌의 정착화와 매력 만들기 ○ 서틀버스 무료운행 ○ 마스코트, 캐릭터의 명칭 모집 ○ 마스코트 레이스 개최 ○ 관광공업으로 전환, 유홍농지 활용 ○ 라벤더의 수확제 확립 : 1주당 500㎘ ○ 허브 헤스티벌 기간 중 1만人事이 체험한다. 캠페인 : 딸기수확, 포도수확의 감각을 도입하여 라벤더 수확제를 즐기는 것 ○ 매력 있는 가든 만들기와 경비사업 ○ 河川湖川 미술관 오픈(6월 25일) ○ 8. 소년공원의 정비, 조명공사 실시 ○ 라벤더 결혼식 실시(신청 75,000원) ○ 가정화 단 만들기의 보급과 꽃의 공구로 실시 ○ 제 3회 허브웨스티벌 개최(6월 25일 ~ 7월 17일; 23일간) ○ 8. 소년공원의 조명 설치 ○ 밤의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 ○ 河川湖川 야외박물관 구상 추진 ○ 천체의 풍부한 자연과 차지에 소재하는 역사, 문화, 뮤포인트 등을 연결하는 「야외박물관 구상」 ○ 河川湖川의 귀중한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며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옥전체를 지붕이 없는 박물관으로 구상한다는 것 ○ 제 1회 후지축제 개최(4월 29일 ~ 5월 8일) ○ 관광농업으로 전환 : 유홍농지의 활용에 의한 블루베리농원, 무름 농원, 고사리 농원 등의 개설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회 허브웨스티벌 개최(6월 24일 ~ 7월 16일) ○ 제 5회 허브웨스티벌 개최(6월 22일 ~ 7월 14일) 	

〈표-5〉 허브훼스티발 기간중의 이벤트 현황

이벤트명	내 용	장 소
라 벤 더 김 상	6월 하순~7월 하순까지 약 10만분의 라벤더 향의 세계를 만끽	八木崎公園, 人石公園,
허 브 컬ച�스클	리소재작코너 체험, 허브를 이용한 인테리 어제작	船津兵、平兵 八木崎公園, 허브관
디저트샵	허브포테이토, 허브아이스크림, 허브티 등 허브 즐거움 만끽	八木崎公園
허 브 쇼	라벤더모목, 허브풀 이용한 상품 및 아마나시 허브산물판매	八木崎公園 人石公園
라 벤 더 묘 무료선물 (도·일)	河川湖에서 재배한 모목을 무료포장제트	八木崎公園
라 벤 더 수 확 (7월14일)	공원내의 라벤더 일부를 방문자와 신청에 의해 자를 수 있는 즐거움부여(500원)	八木崎公園
라 벤 더 자로기	라벤더농원에서 라벤더를 자르는 체험(유 료, 수령한정), 단체의 경우에는 사전예 약요	八木崎公園 ラベン더農園
허보오너 스 텁 페인	창의 오너제도, 라벤더 농원 오너 희망자 풀 접수(2만원, 3년유료)	八木崎公園
허 벌 리 제 페 인	河川湖 허브마을의 주민표발행, 시설 할인 권과 대수 툭진부여(2000원, 3년유료)	八木崎公園
조 종 가 수 라 벤 더 코 서 트	라벤더향이 칠개 꿀지는 속에서 초청가수 의 담금한 목소리가 울려져진다.	八木崎公園 스테이지
세계매직 & 장그림쇼	매주 토·일, 세계의 즐거운 쇼 공연	八木崎公園 특설 스테이지
허브사진 콘테스트 입 작 품 전	'95년도 河川湖 허브사진 입상작품의 전람 회	八木崎公園 大石公園 大池公園, 河川湖町內 수도 선경리리
허브사진 콘테스트	라벤더동의 허브와 이벤, 후지, 호수 등을 피사체로 한 사진촬영회 (그랑프리 1점 20만원 외 상품다수)	八木崎公園 大石公園 大池公園, 河川湖町內

(주간이벤트)

이벤트명	내용	장소
허브모텔 사진촬영회	라벤더가 만개한 차태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모텔을 피사체로서 사진촬영회(사진 콤보스토연맹)	八木崎公園 大石公園
허브 스탬프리리	허브웨스티벌의 각 포인트를(4군데) 들면서 스팸프를 찍어 완성하면 선물증정	八木崎, 미술관, 허브관, 박물관, 자연생활관
후지·河口湖 라벤더 순회전기대회	河口湖의 자연을 만끽하는 2일간의 전기 대회 10, 20, 40km 쿠스(참가비있음)	河口湖町내
도리골불 레이스	용을 형상으로 한 유니크한 보트레이스 (참가비있음)	河口湖競艇場
허브모목 프레젠톤	허브관은 컬魁스쿨과 허브용품매와 정원과 온실에 약 100종의 라벤더와 레몬타임 등이 세 배되고 있다. 허브웨스티벌중 단체 예약된자에게 허브모목프레젠톤	河口湖 허브관
라벤더 웨딩 7월 6일, 7일	人道公園에서 라벤더원에서 결혼식 모집 (각4조 : 주간 3조, 야간 1조)	河口湖 허브관
(야간이벤트)		
라벤더 감상 밤10:00까지	八木崎公園을 라이트업(조명) 주간과는 다른 느낌의 라벤더감상이 가능	八木崎公園
후지산 河口湖의 봄나들이	후지산등산의 안전을 기원하고, 정려하고 업속한 전통예능봉납과 신사를 거행	林作公園
밤의 봄꽃놀이 대회	허브를 이미지한 봄꽃놀이에 맞추어 음악에 나레이션까지 넣어 환상적,	船津
밤의 이벤트 (매주 토요일)	밤을 다채로운 쇼로 기획	八木崎公園
해외여행의 빙고대회 기간중 금,토,일	협찬시설에 숙박하며 빙고대회로 해외여행 상품 : 관광어 1조, 河口湖숙박 50조, TV 5대 등 다수	八木崎公園
디저트샵	허브칵테일로 밤의 즐거움	0八木崎公園

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또 허브를 생활화하는 문화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요리에 허브를 도입하여 허브와인, 허브티, 허브쿠키, 허브비네거, 라벤더스테이크, 허브리스, 허브암회, 포푸리, 염색, 허브비누, 허브목욕수 등을 생산하고 허브제배강습회, 허브활용강습회와 허브를 통한 관광사업으로 허브가든조성, 관광 상업에 허브활용, 허브명물요리개발하는 등의 허브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진1) 허브훼스티벌 이벤트장



(사진2) 허브관

허브의 생산연구사업으로는 허브렌탈농원사업, 시장조사, 시험재배, 보급사업을 하였고, 평소에 노인클럽 등의 자

원봉사자가 제초 및 시비를 관리하는 등 고령자가 이벤트에 참여하여 삶의 보람증진, 허브재배, 건강증진의 허벌(Herbal)목욕 권유, 허브가공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축제의 정착화와 매력도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무료운영, 마스코트 레이스 개최, 라벤더 결혼식, 꽃의 콩크루를 실시하고 있다(표-5). 이러한 Herb Festival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조직개편을 시도하였는데, 「공원녹지계」를 신설하여 허브훼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다.

5) 허브훼스티벌의 성과 및 효과

허브를 소재로하여 향, 꽃 그리고 참가, 체험 등을 주제로한 지역 활성화정책은 이용범위가 다양한 허브를 선정했다는 것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이 추구하는 관광성향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허브이벤트를 성공로 유도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의 주목할 점은 오사노읍장의 先見之明의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 성공의 결과이다.『허브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한 허브사업은 발신원인 행정내부에서부터 인식전환을 위한 연수 및 과견과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묘목무료 배포, 초청강연회 등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의 과감한 투자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또 잡초가 무성했던 호반구석이 라벤더의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라벤더라고 하는 환상적인 경관요소는 지역주민을 물론 새로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 부여하였다.

또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는 라벤더의 묘목재배와 라벤더 수확제에 참가수요가 높은 것에 힌트를 얻어 연계사업으로 딸기와 블루베리 수확제, 허브오너제도 등 유휴농지를 활용하며 더불어 특산물로써 블루베리, 고사리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였고 허브훼스티벌은 지역활성화 외에 대도시의 인구분산정책에도 일조를 기하고 있어 농 어촌, 산촌의 과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방안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허브재배관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에 의하고 있어 토양의 보호 및 생태계의 유지라고 하는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계몽효과도 높였다.

이상과 같이 특색있는 지역만들기가 전개되면서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는 신문 텔레비전 잡지 등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지와 지명도가 높아져 허브훼스티벌을 기획한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와 협력 봉사

에 참여한 각종단체,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애향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허브상품의 생산 판매에 있어서 높은 인건비에 따른 자체생산품이 수입상품보다 가격이 높아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허브의 대부분이 유기농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제초작업과 병충해 대책으로써 연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그 유지관리해결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4.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농 산촌,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야마나시현 가와구찌꼬쵸에서 실시하고 있는 라벤더 허브 훼스티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벤트현황, 이벤트전략을 개관하고 허브훼스티발이 지역에 미치는 성과 및 효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와구찌꼬쵸(河口湖町)에서는 라벤더 훼스티발을 개최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과 행정조직개편, 과감한 투자, 허브를 생활화하는 문화사업 전개, 허브의 생산연구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전개하여 참가자는 매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과소문제해결이라는 사회문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라벤더 훼스티발은 주민의 철저한 봉사활동과 주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방문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체험부여 등에 의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훼스티발기간 중에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의미부여 및 자립생계 촉진에 따라 사회복지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3) 훼스티발을 주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허브식물의 제초작업과 병충해 대책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자체생산품이 수익상품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허브의 이용은 경제의 안정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인데, 이제 우리나라 GNP \$10,000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에따라 국민은 건강과 미용에 대한 욕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 단순관광에서 주제관광으로 변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성향에 부응한 신소재의 허브는,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허브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그 첫번째 단계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문제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허브훼스티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허브훼스티발을 개최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1) 허브훼스티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편성 및 주최측인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확신, 홍보와 관계자에 대한 허브인식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인문 자연환경, 허브의 생태적 조건 등 많은 기초연구와 주최지인 지역주민의 허브인식고양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허브이벤트는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가, 고령자, 신체장애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 훼스티발이 단순한 위락위주의 놀이행태가 아닌 환경교육의 장으로써 역할도 겸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와 전담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일본에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허브가공상품의 경쟁력, 유기농법에 따른 병충해, 제초작업 등에 대하여 사전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参 考 文 献

1. 草土出版(1995), 花圖鑑 Herb.
2. 永野方壽子(1994), 花のプレゼント, 同朋舎出版.
3. 桐原春子外 8人(1992), ハーブの花 アルバム, 誠文堂.
4. 誠文堂(1996), Herb, Herb 2 .
5. 충청북도(1996), 허브를 이용한 지역개발방안의 연구,
6. 渡 万男(1983), 富士山 五湖地域 觀光振興計劃, 富士山 五湖地域 觀光振興協議會.
7. Lois Vickers(1991), The Scented Lavender Book, EBURY PRESS.

충청북도보고서.